

# ‘제2언어교육 맥락에서 대화함축의 이론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박재연(아주대)

이 연구는 대화함축과 관련한 이론적 쟁점을 소개하고 이것이 제2언어교육에서의 화용론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논문입니다. 대화함축 교육은 개인적으로 막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분야여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래에서 더 알고 싶은 것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3.2.2.에서 대화함축의 교수 방법과 관련하여 명시적 교수 방법과 암시적 교수 방법 중 명시적 방법이 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더 우세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가 모어의 화용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제2언어 습득에서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동시에 명시적 교수 방법이 ‘필요한 특정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비효율적’이며, 암시적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암시적 교수 방법에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암시적 교수 방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왜 명시적 교수 방법이 특정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보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예문 (8)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8) 가. 네 친구 몇몇이 채식주의자니?

나. 몇 명은.

→ ‘나’의 친구 모두가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8)의 ‘가’의 질문은 ‘나’의 친구 중에 채식주의자가 실제로 몇 명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으며 이 질문에는 적합성을 추구할 추가적인 기대가 들어 있지 않고 등급함축에 해당하는 해석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의 질문에서 ‘몇몇’이 의문 대명사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부정 대명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답은 이를 부정 대명사로 이해하였을 때 적절한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때 ‘나’의 대답은 (7)에서와 같은 해석을 유발하지 않나 합니다. 전반적으로 (7)과 (8)의 차이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대화함축 교육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함축 연구 자체가 Grice 이론의 단순 수용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한국어교육에서도 함축 교육이 좀더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어가 매우 능숙한 중국인 교수가 한국의 은행에서 “오늘 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려워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은 계좌 개설이 안 된다.’로 해석하지 못하고 ‘계좌 개설이 어렵긴 하지만 할 수는 있다’로 해석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용적 지식의 일부가 언어 보편적이며 일부는 L1에서 전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함축 의미의 생산과 추론에는 각 언어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는 듯하고 여기에는 문화적 요소도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함축 교육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관련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